



이정선 교육감, 학생 유권자와 함께 투표 참여 이정선 교육감이 제22대 총선 투표일인 10일 오전 9시 광주시 동구 계림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처음 유권자가 된 3학년 학생들과 함께 투표했다. 이 교육감은 "생애 첫 투표는 민주 시민으로서 소중한 한 걸음을 내디딜 기회다"며 "첫 유권자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7곳 적발

대기·폐수 배출사업장 34개소 대상 시민 참여 합동점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광주 지역 업체 7곳이 법령 위반으로 적발됐다. 광주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7곳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대기 자가측정을 하지 않은 사례 3건과 대기방지시설 기계·기구류 훼손·방치, 대기변경신고 미이행 등이다. 이 중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3건은 광주시 사회재난과(민생사법수

사업)가 수사를 진행한다. 기타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오숙 광주시 환경보전과장은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민관 합동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4곳에 대해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김도기 기자

서구, AI 활용 복지사각지대 초기상담 실시

복지 위기 6000여 가구 대화형 AI 기반상담 진행

서구가 인공지능(AI) 활용 초기상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서구는 최근 보건복지부 주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초기상담 시범사업'에 선정돼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 범위 확대 및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AI 초기상담은 위기정보 입수 1인 가구 및 소재미확인 대상자 등 6000여 가구에 문자 발송과 함께 사전 안내를 진행한 후 대화형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자동전화시스템으로 ▲본인확인 및 위기상황 파악 ▲육구상환 파악 ▲심층상담 여

부 확인 등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로써 초기 상담단계의 업무를 지원, 직원들의 역량을 심층상담 및 복지지원 업무에 집중해 위기가구에 신속한 적기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대화내용, 상담결과 등 AI 초기상담 결과는 복지전선망을 통해 지자체 담당자에게 전달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아울러 서구는 AI활용 초기상담 시스템 운영 시범 지자체로서 추후 전국 운영을 대비한 멘토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조선주 기자

"황룡강생태길30 유채꽃 보러 오세요"

1.5km 꽃길·1만2000㎡ 꽃단지...포토존 설치



광산구가 지역 대표 명품길로 조성하는 '황룡강생태길30'의 핵심 거점, 황룡강 서봉천수지구에 봄의 정취를 전하는 유채꽃이 만개했다. 서봉천수지구 내 유채꽃 단지는 '황룡강생태길30' 사업의 하나로 조성됐다. 길이 1.5km의 꽃길과 1만2000㎡에 달하는 꽃단지이 이뤄졌다. 봄을 맞아 최근 유채꽃이 활짝 피면서 바람에 일렁이는 금빛 유채꽃과 황룡강의 물빛이 어우러져 한쪽의 수채화 같은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광산구는 상춘객 맛을 위해 곳

곳에 사진 촬영 구역(포토존)을 설치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서봉천수지구 꽃단지는 황룡강생태길30 구간 중 가장 자연풍광이 아름답고, 계절마다 형형색색의 매력을 뽐내는 곳"이라며 "광주를 대표하는 '힐링명소'로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는 지난해 시민 참여를 통해 서봉천수지구 꽃단지에 다양한 계절 꽃을 심었다. 5월에는 꽃양귀비와 안개초, 10월에는 벚꽃, 마편초, 팜파스, 뱀사리 등의 꽃이 피어 시민을 맞이할 예정이다. /이동기 기자

"다문화 편견 깨뜨려주길" 귀화인도 투표

대한민국 국적을 얻은 귀화인들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이들은 같은 조상을 둔 한핏줄인 고려인을 향한 관심과 포용을,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이 없는 하나 된 사회의 완성을 바랐다.

신조아 광주고려인마을 대표는 10일 오전 광주 광산구 우산동 제4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쳤다. 고려인 출신인 신 대표는 지난 2006년 대한민국에 입국, 2015년 정식으로 국적을 얻어 현재 어엿한 광주시민이다.

국적을 얻은 뒤부터는 매 선거에 꼬박꼬박 참여하고 있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 이어 이날 국회의원 선거까지 참여하며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신 대표는 고려인을 향한 관심과 포용을 당부하며 매 투표에 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고려인 입국 사례가 많아지고 관련 사회 규모가 커지면서 인식의 변화와 이에 발맞춘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특히 일제강점기 연해주 등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의 후손인 점을 들면서 오늘날 많은 고려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엿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길 바라고 있

광주고려인마을 주민들 투표장으로

"갈등·분열 벗어나 화합하는 사회 만들어야"



신조아 고려인마을 대표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오전 광주 광산구 우산동 제4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다. 신 대표는 "일제의 만행을 피해 연해주에 정착했던 조상님들은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중앙아시아로 흩어졌다. 국적조차 얻지 못하고 궁핍한 삶을 살아오던 고려인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또다시 위기를 맞았다"며 "현재 고향 대한민국이 손을 뻗어준 덕에 많은 동포들이 고향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과거에는 고려인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을 일일이 증명하고 다녀야 했다. 같은 조상과 뿌리를 찾지만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라며 "제22대 국회는 내국인과 고려인 모두가 한민족임을 인식해 흉번도 장군 논란과 같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불필요한 일을 만들지 않길 바란다"

순천만 흑두루미, 동천 그린아일랜드 벚꽃길 따라 복상

순천만서 월동 마치고 지난 7일 모두 번식지로 이동



순천시는 흑두루미가 순천만에서 월동을 마치고 지난 7일 모두 번식지로 복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순천만에서 월동한 흑두루미는 7238마리이며, 작년 보다 41% 개체수가 증가한 것이다. 2022년 11월 일본 이즈미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순천만으로

역유입 했던 흑두루미 중 절반가량인 3000여 마리가 2023년 가을에 일본으로 내려가지 않고 순천만에서 월동한 것으로 보인다.

월동지와 번식지를 오가는 이동시기에 순천만을 중간 기착지로 이용한 흑두루미도 8661마리로 조사됐다. 국제두루미재단은 순천만 흑두루

미 보전과 한국 내 서식지 보전을 위한 순천시의 노력에 주목하고 있다.

흑두루미 월동 개체수가 늘면서 대대동 흑두루미 희망농업단지 뿐만 아니라 별량면 학산동, 해룡면 상내팔 등 순천만 인근 농경지로 서식지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어싱길과 순천만 탐조대는 흑두루미 탐조 거리 70~80m로 가까이되면서 숙박과 연계한 탐조프로그램이 성황리에 운영됐다.

시는 올해부터 큰고니, 황새 등 순천만 조류 종다양성 증진을 위해 새생태지가 복원, 무논 조성, 농경지 내 환경저해시설 철거를 단계적으로 추진, 계절별 탐조 신동선을 개발해 체험형 고품격 탐조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 /순천=조순희 기자

고 했다. 귀화 이후 첫 투표에 나서서 고려인도 있다.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에 투신한 고 박노순 선생의 현손녀 최빅토리아(26·여)씨도 이날 귀화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첫 투표에 나선다.

2020년 카자흐스탄을 떠나 광주 고려인마을에 정착한 최씨는 2022년 8월 광복 77주년을 기념해 열린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 당시 가족들과 함께 한국 국적을 얻었다.

고려인마을 내 다문화가정을 이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순수 고려인 동포 유권자로서는 최씨가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2대 국회를 향해 "국내 귀환 고려인동포를 따뜻한 품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훌륭한 국회의원 탄생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사전투표를 마친 귀화인들도 제22대 국회를 향한 열원을 내비쳤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을 깨뜨릴 수 있는 정책 입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지난 2003년 귀화한 필리핀 출신 김세라(46·여)씨는 "대한민국 사회가 갈등과 분열 국면을 맞고 있다. 화합을 기반으로 한 사회 완성이 시급하다"며 "나아가 다문화 정책에도 보다 힘을 쏟아주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동기 기자

광주전남병무청 11~18일 병역판정검사 휴무

광주전남병무청은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각종 신체검사 장비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점검 등을 실시하게 된다. 중앙병역판정검사소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병역판정검사장이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병역판정검사 등 모든 검사는 19일부터 재개한다. 광주전남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이 기간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봄철 '성홍열' 유행 손씻기 등 안전수칙 지키세요

전남도는 최근 일본에서 성홍열과 동일한 원인균에서 발생하는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STSS) 유행함에 따라 기침예절 준수, 손씻기 생활화, 상처 부위 노출 최소화 등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일본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 환자는 코로나 유행 기간에 발생이 줄었다가 2023년 941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 들어서도 2월 말까지 414명이 발생하는 등 예년보다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2023년 국내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 의심 사례는 1건이다. 2023년 전국 성홍열 발생은 810건으로 전년보다 60.4% 늘었고, 전남에선 32건으로 전년보다 68.4% 증가했다. 독성쇼크증후군 초기에는 고열, 오한, 메스꺼움, 인후통 등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가벼운 호흡기 증상이 일어난다.

이후 중증으로 진행되면 괴사성 근막염,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악화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사람 간 접촉을 통한 전파는 드물며 국내 발생이 매우 낮아 유행 가능성은 낮다. 독성쇼크증후군 예방을 위해 65세 이상 고위험군에서 고열, 발진, 지혈 안, 근육통 등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상처가 발생한 경우 상처 부위의 외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108세 김정자 여사 "오래 살아 투표하는 게 행복"

광주 100세 넘는 고령자 발걸이 이어져 남구 104세 이영조씨도 소중한 한 표

"10년은 더 살아 광주 최고령 유권자 한 해 봐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10일 광주에서 100세가 넘는 고령자들의 투표권 행사가 이어졌다.

광주 동구지역 유권자 중 최고령자인 김정자(108) 여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동구 계림1동 제2투표소를 찾았다.

딸과 함께 투표소에 입장한 뒤 신분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원들은 "1915년생이라고요?"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혼자 지팡이를 짚고 기포한 뒤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을 만큼 정정했기 때문이다.

그이 집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놓아 주변에 있던 유권자들과 선거관리원들은 박수를 치며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라며 응원했다. 김 여사도 그들의 양손을 꼭 잡으며 "고맙소"라고 화답했다.

1915년 일제강점기 시절 태어난 김 여사는 이날 오전 6시에 일어나 삶은 계란과 커피 한 잔으로 간단히 요기를 한 뒤 투표장을 찾았다.

그는 "투표를 하니까 기분이 정말 좋다"며 "이렇게 오래 살아 여전히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고 되물었다.

김 여사는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나 같은 노인들이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재미있게 살 수 있게 도와줬으면 한다"는 바람도 전했다.

1963년 10월 15일 제5대 대통령선거를 첫 투표로 지금까지 한 번도 투표권을 포기한 적 없다는 그는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계속 투표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10년을 더 살아 동구를 넘어 광주 최고령자 유권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광주 남구 선명학교주월1동 제3투표소에서는 이영조(104)씨가 투표를 마쳤다. 이날 새벽 5시부터 집을 나선 이씨는 아내 차정순(89)씨의 부축을 받으며 투표소에 들어섰다. 100세가 넘는 고령의 나이로 몸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오전 광주 동구지역 최고령 유권자인 김정자(108·여)씨가 계림1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불편하지만 지금껏 투표는 단 한 번도 거른 적 없다. 이날도 어김없이 투표를 위해 꼭두새벽부터 집 근처 투표장을 찾아왔다.

투표를 마치고 나온 이씨는 "투표를 한 것이 자랑스럽다. 그리고 감격스럽다"며 "우리나라가 국민이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자유의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며 "건강할 때까지 계속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 남성 중 최고령자 서구 중앙동 선대규(104)씨는 사전투표 기간 투표를 마쳤다. /김도기 기자